

25. 집성촌에서 지켜낸 씨, 성환 개구리참외

우리나라 집성촌은 대대가 15세기를 전후해서 형성된다. 조선의 대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불 안정할 때 자신들을 보호할 대체 조직으로 집안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안정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 집성촌의 특징은 대개 유전적인 대물림을 기본으로 완벽한 상하 계급구조를 완성 하여 친척끼리 협동하여 역경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집성촌 내에서는 근 인척간의 경쟁이 불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우 자부심이 높았고, 우리 것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친인척 간의 편애는 인지상정, 서로 돋고 사는 상부상조의 사회가 집안의 시너지를 가져왔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집단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집성촌과 토종 씨앗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바로 그 보수성에 기인한다. 씨앗 수집을 하다 보면 집성촌에서 지켜온 경우가 가끔 볼 수 있다. 특히 집안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무더운 여름에 성환 매주리를 찾았다. 현재 이 개구리참외를 성환에서 심고 있는 분을 찾았다. 지승근 선생 부부다. 그는 우리를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 농막으로 이끌었다. 그곳이 그들 부부의 반 생활공간이었다. 지승근 선생은 이 마을 토박이로 지금까지 개구리참외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개구리참외의 특성을 살려 농사짓고 계신 분이다. 그분을 통해 성환 참외의 내력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 선생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또 그분은 누군가를 지목하고, 몇 번의 퇴짜, 몇 번의 거절.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한디요?

뭐를 믿고 뭐를 버릴 건디요?

찔데 없는 얘기 아니요.

난 아무것도 모르오!

내가 이름과 나이를 온전하게 알아낸 분은 오직 지승근 선생뿐이었다. 토종 씨앗 이야기를 들으려고 만주에서 제주도까지 다녀 봤지만, 이곳처럼 거절당한 곳도 없었고, 이곳처럼 포기하지 않은 곳도 없었다.

정설이라고 보기에는 그 논거가 약간 부족하지만, 성환에 개구리참외가 들어 온 것은 아마 1880년대 중국의 하마스라는 참외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 -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의 토지농산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비교 사진](#)) 일본인들의 교배종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전자가 사진을 비교하며 설명한 것으로 보아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정설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성환에서 개구리참외가 이어져 오고, 한때 개구리참외의 주산지 중의 하나였던 매주리에 개구리참외를 들여왔던 사람은 정*영 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을 거쳐 인터뷰하면서 직계 집안 중 한 분이 어렵게 그 말씀을 전했다. 그분 말씀을 토대로 작성하면 이렇다.

매주리의 개구리참외를 설명하려면 정관용 옹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정관용 옹은 청주정씨 중의 한 분이다. 쭉 매주리에서 자리 잡고 살아온 집안이었다.

매주리는 오래된 청주정씨의 집성촌이다. 청주정씨가 이 마을로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게 된 때가 조선 후기 1800년대이다.

정관용 옹의 할아버지인 정*영이 이 마을로 살 많은 참외를 들여온 것은 아마 1880년대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들여온 경로나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중국의 하마스라는 참외

가 당시 평택항을 통해 들어와 심기 시작하면서 1번 국도를 통해 아래 지방으로 조금씩 퍼져 갈 무렵 밖의 일을 보러 자주 나가던 정*영 옹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더구나 육질도 풍부한 참외를 보고 집안들의 식용을 위해 마을로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과일이 귀한 때였으니 집안의 보배나 다름없었고, 그 자부심은 대단했으리라 보인다.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간 하마스 참외는 현지 토양이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락했으나 유독 매주리에 들어 온 참외만이 집안의 보호 아래 잘 자라 집안의 보배가 되었다.

그 후 점차 집안을 떠나 마을로 퍼졌고, 이내 이웃 마을로 퍼져나갔다. 식재 마을도 늘어가고, 특히 성환이 참외와 궁합이 잘 맞는 토질을 가지고 있어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1대 부흥기를 맞게 된다. 1920년대 경이다. 집안뿐 아니라 마을을 먹여 살렸다. 이때 이름을 얻은 것이 바로 성환 개구리참외다. 당연히 모양을 본떠 이름 지었다. 색깔도 그렇고 생김새도 등허리가 울퉁불퉁한 것이 영락없는 개구리 모양이다. 언뜻 넝쿨에 가려지면 개구리가 영락없다.

아마 외국에서 처음 들여와서 그 이름을 얻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작물이 외지로부터 들어와 이름을 얻으려면 우선 그 지역의 문화와 동화되어야 한다. 우선 많은 사람이 맛이나 재배에 동의해야 하고 우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이름을 붙이게 된다. 개구리참외는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맛도 맛이려니와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 확산이 놀라운 데, 모두 다 그 참외를 성환 참외 또는 개구리참외라 부르고 누구는 성환 개구리참외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마스에서 개구리참외라는 토종 이름이 붙고, 성환이라는 지명을 앞세우면서 지역 토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듯 개구리참외의 첫 번성기는 193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 마을은 1번 국도와 접해 있었는데, 도로 주변에 원두막을 짓고 판매했다. 참외도 참외였지만, 신작로 양쪽으로 들어선 그 원두막이 참으로 불만했다고 한다. 장관었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개구리 참외 전성기가 돌아올 때 마을에서 재현했지만 그때만은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원두막은 각자 고안해 낸 디자인으로 독창성이 발휘됐다. 워낙 많으니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띄려면 하는 수 없었다. 평범은 그날 떨이까지 감수하며 제일 늦게 집에 돌아가야 했다. 옆 사람이 평지붕을 하면 둑근 지붕으로 맞섰고, 재질도 밀댓짚에서 보릿짚, 벗짚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옆 사람이 늘어놓고 팔면 기계체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쌓아 놓고 팔았다. 대신 엄격한 것은 가격이었다. 미리 내규로 정해놓은 크기에 따라 맞춰 놓았다. 이것만 빼면 파는 것은 수완이었다. 매일 장이 섰다. 아무리 맛에 대해 홍보했지만, 맛 차이는 없었다. 가끔 소리 큰 게 맛을 좌우하긴 했지만, 대세를 좌우하진 못했다.

이러한 장관이 끝나면 여름도 끝나 가을로 이어졌지만, 마을에서는 마을 잔치로 이어졌다. 술과 떡, 노래. 모든 게 풍성했지만, 참외만큼은 시든 넝쿨에서 따온 설익어 쭈글쭈글한 거리는 개구리참외가 그들 잔칫상에 올랐다. 누가 더 쭈글거리는 것을 가지고 나오냐가 그해 농사를 판가름했다. 모두 웃었다.

이 부흥기가 해방 후까지 이어져 오다가 60년대에 이르러 ‘나이론 참외’인 - 껌질이 나일론처럼 매끈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개구리 참외의 껌질과 비교해보면 그 이름의 유래가 이해가 간다 - ‘춘향’이라는 품종인 단맛이 강한 육종 참외가 나오면서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 뒤 은천 등 노랑 참외가 나오면서 노란색이 가져오는 색감으로 참외는 노랗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놓으면서 급격하게 쇠퇴기를 맞이한다. 마을에서도 한 집 두 집 참외를 심지 않고 시설 하우스를 통한 소득 작물에 매달리면서 참외는 더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가 단맛이 한층 강해지면서 성환 개구리참외의 명성은 없어지게 된다. 급기야 마을에서 개구리참외를 버렸다.

거의 80여 년은 마을을 지켜온 참외였지만,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조차 버릴 수는 없었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않겠나? 동네를 먹여 살린 게 얼만데?

그 억울함에 손자인 정관용 옹이 겨우 한두 포기 심었다. 그는 이 참외가 자기 조상이 마을로 들여와 한때 마을의 소득 작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어쩌면 집안 어르신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유달리 개구리참외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종자를 보관했고, 해마다 텃밭의 한구석을 개구리참외로 채웠다.

그러다가 온통 마을이 개구리참외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나이론 참외가 들어오면서 교잡이 염려돼 아예 격리를 해버렸다. 그게 텃밭에서 집안으로 들어 온 계기였다. 다시 정씨 집안의 참외가 됐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 옛 명성이 그립거나 그 맛이 그리울 때는 한두 포기 얻어 심어 먹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곤 했지만, 곧 잊었다. 그래서 모두 개구리 참외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났다. 80년대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리움에 지치기 시작했다. 사무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명성이 그리웠고, 한쪽에서는 막연한 그리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80년대 초였다.

이때 나선 분들이 바로 지금까지 성환에서 개구리참외를 심어오고 있는 지승근 선생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 정재택, 오중경 씨 등 원예작목반이었다. 시설 하우스의 여름 비수기의 소득 작물의 개발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기실 그들이 노린 것은 바로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었다. 8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는 농촌과 소멸하는 농촌 문화를 바로 지키자는 게 그들의 속내였다. 개구리참외는 마을 문화의 중심이었고, 마을 음식의 중심이었다. 마을의 놀이는 흥에 겨웠고, 두레를 잇는 품앗이를 되살아나게 하자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 15,6 가구가 모였다. 이때 정관용 옹이 기꺼이 다시 종자를 내왔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홀로 지켜온 보람이 있었다. 그는 다시 매주리의 부흥을 꿈꿨다. 개구리참외의 부흥은 그 집안에 대한 염치요, 체면이라 생각했던 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다시 마을의 부흥이 개구리참외로부터 시작됐다. 돈이 넘쳐났고, 활기도 넘쳐났다. 전국에서 참외를 가지려 오는 차들로 줄이 섰고, 원두막은 훨씬 세련되게 지었다. 아낙과 아이들은 원두막을 짓고 참외를 팔기 위해 1번 국도로 나갔다. 다시 1번 국도 양쪽에 원두막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마을 문화도 바뀌었다. 한쪽에서는 전통을 이었고, 현대적 감각을 도입하여 콩쿨 대회도 열어 마을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때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제사장에도 개구리참외가 올라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싸라기 참외에 밀렸다. 종자 이름도 이름이었거니와, 색깔, 맛, 모양. 모든 것이 변해버린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갈 수 없었다. 울퉁불퉁한 모양, 식감을 떨어트리는 색, 특히 당도라는 ‘부룩스’개념이 과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도매상들은 사람들의 입맛과 선별 기준을 바꿔놓고 말았다. 1번가의 원두막은 하나둘 없어지고, 씨앗은 유전자원 센터의 냉동고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관용옹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다. 자제분은 일찍 죽어 그 뜻을 이어받지 못했고, 손자들은 대처로 나가 땅과는 멀어지며 집성촌의 의미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으니 함께 지킬 씨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 후 지승근 선생이 기술 센터를 통해 종자를 분양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